

부산 신항...그 역사의 현장에서

태풍 ‘매미’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4시간 돌관작업이 불가피하였다.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일출력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초대형현장에서 안전·환경팀장을 역임하며
바람 불면 모래먼지 걱정, 비 오고 눈 오면 안전사고 걱정, 한 달에 채 하루도 마음편하게 쉬어보지 못했던 것 같다.

18 76년 부산포란 이름으로 개항한지 130년이 된 부산항이 지난 1월 19일 ‘동북아 물류 허브’, ‘미래로의 힘찬 도약’을 목표로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신항은 대형 컨테이너선 30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항만부지 338만평, 부두용지 204만평, 관련 부지 134만평 규모로 총공사비 9조 1,542억원이 투입되며, 1997년 공사 착수하여 2011년에 완공 예정이다. 연간 804만 TEU(최고 1,80만 TEU)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연 3조 5,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신 중심항만이다.

이중 이번 개장한 3개 선석은 5만톤급 대형 컨테이너선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안벽 길이가 1.2km, 폭이 600m에 이르고, 연간 컨테이너 90만 개를 처리할 수 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인 초대형 안벽 크레인(높이 65m, 22열, 대당 가격 65억원) 9대와 시간당 35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야드 크레인 18대 등 하역 장비만 172대에 달한다. 더욱이 부두 내에서 모든 하역, 환적 서비스가 가능한 온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작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대규모 배후 물류 단지를 갖추고 있어 부가가치 화물 창출이 가능하다.

신항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배후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지난해 2만 5,000평을 우선 조성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22만평을 추가 조성기로 하였다. 당초 2013년까지로 계획된 북측 배후부지 93만평을 2011년까지 2년 앞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웅동지구 19만평은 올해 안으로 배후부지 조성 종합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필자는 종로 5가항만 청시절의 기본계획부터 참여하여 3선석 개장까지, 엔지니어로 근무한 18년 중 2/3가 넘는 11년 동안 오직 부산 신항 하나의 프로젝트에만 전력을 하였다. 그런 만큼 신항 개장을 맞이하는 그 감회가 남다르다.

1997년부터가덕도 동쪽이 좋은지 북쪽이 더 나은 입지인지 놓고



양권열
삼성물산 건설부문차장

민해야 했다. 낙동강 하구 언철새 도래지 보호를 위해 북컨부두와 남컨부두를 안벽으로 연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교로 계획해야 하는지의 여부도 고민거리였다. 사전 환경성 검토,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 허가,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인허가 과정의 중심에 서있기도 하였다.

2001년 1월에는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셨던 현대통령을 모시고 민자 부두 공사 착공식을 거행하였으나, 더 많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어업인들과 힘겨운 대화를 하느라 착공하고도 반년 가까이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

다. 어렵게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자고 나면 늘어나는 양식장 폐말목을 지키기 위해 밤새워보초서고, 소각 처리도 어려운 만큼 이 넘는 양식장 폐말목을 적법하게 처리하느라 몇 개월 동안 머리 싸맸던 기억도 새롭다.

신항 공사의 최대 과제였던 4,000만㎡의 매립 재하 토용 모래를 구하기 위해 한 달 넘게 모래 탐사 시추선을 타고 대한해협을 떠돌며 200m이 넘는 보링 조사를 통해 수심 90m 해저에 묻혀 있던 모래를 찾아내었던 때의 감격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모래 채취 반대를 주장하는 어업인, 환경 단체들과 또 다시 힘겨운 대화를 해야 했다. 이후 수많은 공청회, 토론회 등의 과정에서 타협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였기에 적기에 필요한 모래를 확보할 수 있었다.

태풍 ‘매미’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4시간 돌관작업이 불가피하였다.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일출력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초대형현장에서 안전·환경팀장을 역임하며 바람 불면 모래 먼지 걱정, 비 오고 눈 오면 안전사고 걱정, 한 달에 채 하루도 마음편하게 쉬어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흘러 이렇게 토목공정 3.5개월 단축, 3선석 전체 공정 1.5개월을 앞당겨 부산 신항 3선석을 조기 개장하게 되었으니 그 역사의 현장에선 사나이의 가슴은 감개가 무량하다. 